

김동인 소설의 인식적 기반과 부정의 미학*

이 동 길**

< 목 차 >

- I. 서 론
- II. 절망적 현실과 자아의 허무
- III. 자연과학적 인식과 도덕의식의 괴리
- IV. 비주체적 현실인식과 부정의 미
- V. 결 론

< 요약문 >

김동인의 작품, 「감자」와 「狂炎소나타」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비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으면서 기존연구에서 자연주의와 유미주의 작품으로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한 작가의 작품으로서 인간의 존재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작품들에 대해 작품이 생성된 공통된 바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두 작품의 분석을 통해 김동인의 인식적 기반과 인식태도를 밝혀 그의 부정적인 미의식이 나오게 된 까닭을 밝혔다.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절망적 현실에 좌절하고 삶의 허무에 빠져 비인간화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도덕의식은 높지만 절망적인 세계의 모순을 넘어 설 수 있는 방향과 가치관을 세우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작가는 높은 도덕의식은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물질주의를 시대의 큰 흐름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 모순된 인식이 삶의 방향을 잃게 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에서는 모순된 현실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길도 찾지 못해 주인공들을 비인간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그 모순을 해소하려

* 본 연구는 1998년도 계명문화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문화대학 교수

고 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감자」의 복녀처럼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타락하지만 자기모순으로 인해 비참한 삶만 초래하게 되는 것을 설정하게 되고 「狂炎소나타」에서는 그 반대로 주인공을 광인으로 만들어 비인간적인 현실에 반항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존재의미에 대한 근본적 신념이 강고하지 못해 현실논리에 굴복하게 된 결과 인간의 존재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존재의미에 대한 본말이 전도된 비주체적 인식으로 이것이 인간과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다. 또한 김동인이 창작방법으로서 내세운 ‘美’도 주체 회복의 한 방법이면서 현실대응의 한 방법으로서였지만 이러한 비주체적인 현실인식에 근거한 모순된 것이었기에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I. 서 론

김동인은 당대의 다른 작가에 비해 대체로 비일상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향이 짙다. 「감자」에서 매음을 하는 복녀, 「狂炎소나타」에서 방화와 살인을 하는 백성수, 「명문」에서 어머니를 죽이는 전 주사처럼. 그런데 김동인은 불행한 인물의 삶을 서술하면서도 그 인물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 나 바탕을 문제삼기보다 그 인물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옹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것도 겉으로 보아 모두 부도덕한 점에서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냉소적이고 또 한쪽은 옹호적인 것이다.

감자의 「복녀」는 부모와 남편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몸을 팔아서까지 가리지 않고 헌신했고, 「狂炎소나타」의 백성수는 비록 그 동기는 가난한 환경 탓이라고는 하나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도 그 천재성(?) 때문에 옹호되고 있다.

이처럼 인물의 불행을 다루면서 인물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들을 문제 삼기

보다 그 인물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일방적인 옹호만을 하며, 그리고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리기보다 어리석고 무지하거나 비정상적인 모습만을 그리고 있다.

이는 김동인의 현실인식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연구에서는 외면적으로 보아 그 성향이 다른 이들 작품에 대해 자연주의와 유미주의로 갈라서 살필 뿐 이런 작품이 생성된 공통된 바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김동인이 계몽주의를 거부하고¹⁾ 참인생을 그리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소설의 取材를 구구한 조선사회 풍속개량에 두지 않고, ‘인생’이라 하는 문제와 살아가는 고통을 그려보려 하였다.”²⁾고 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김동인은 인간의 존재의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인격의 완성이란 문제나 존재의미를 파괴하는 사회적 상황의 모순문제보다 그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행위 여하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인생을 보려고 한 태도이다. 다시 말해 독자에게 불행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인식시키고 모순을 발견하게 하여 그것을 극복하고자하는 생각을 저절로 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삶의 고통을 보게 하여 한 개체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모순된 것인가를 보게 함으로써 이면적으로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특이한 내용을 지닌 「감자」와 「狂炎소나타」의 분석을 통해 김동인의 인식적 기반을 밝혀 그와 같은 인식태도가 나오게 된 바탕을 살피고 그의 부정적인 미의식이 나오게 된 까닭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절망적 현실과 자아의 허무

1) <朝鮮近代小説考>(1929년)에서 춘원에 대해 “종래의 권선징악과 춘원의 권악징선(당서의 도덕안에 비추어)의 사이에는 오십 보 백 보의 차밖에 없다.”고 하면서, “소설자는 인생의 회화는 필지언정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교화 기관(직접적 의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김동인 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20쪽. 이하 ‘전집’으로 표시함)

2) 전집 16, 23쪽.

1 「감자」

「감자」에서 의미의 초점은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한 인간의 존재의미에 두어져 있다. ‘감자’라는 제목이 이미 먹는 것, 생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절박한 생존문제 속에서의 존재의 의미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인공의 죽음이 문제되고 있다.

주인공 복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가난한 부모는 딸을 시집보낸다고 하면서도 돈을 받고 팔았고, 시집은 복녀는 극도로 게으른 남편으로 인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난을 면치 못해 거지들이 사는 빈민굴로 밀려나오게 되고, 거기서 구걸로 목숨을 연명하나 굶기를 예사로이 하는 처지이다.

그러나 이처럼 열악한 처지에서 성장했고 살지만 복녀는 도덕에 대한 특히 여자의 정절에 대한 관념만은 지니고 있어 매음은 “짐승의 하는 것”이요 “사람의 일”이 아닌 것으로 “혹은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³⁾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빈민굴에서 거지짓 말고, 매음을 함으로써 굶는 것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빈민굴의 사람들이 ‘거랑질과 도적질, 매음’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굶기를 예사로이 하는 극도로 궁핍한 처지⁴⁾에서 복녀는 생존을 위해 매음을 하게 된다.

복녀는 인간다운 삶의 길인 도덕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그것을 삶의 바탕으로서 확고히 인식한 상태는 아니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요건에 대한 관념만은 지니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열악한 환경과 극도의 가난이 그녀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요건마저 포기하는 데서 오는 죄의식조차 눈감게 만들었다. 그래서 복녀는 사는데 도덕적으로 자유로와질 수 있어서 도리어 “자신감”을 얻게 되고 “삶의 비결”⁵⁾을 얻은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3) 김동인, 「감자」, 조선문단, 1925. 1., 22쪽.

4) 빈민굴인 “칠성문 밖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드는 편”이라고 하고 “굶는 일도 흔히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형편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되기도 남는다.

5) 김동인, 「감자」, 앞의 책, 22쪽.

복녀는 감독과의 관계를 통해 생존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생활에 활력을 얻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동네 거지와 적극적으로 매음을 행하고, 감자를 훔치려 왕 서방 밭에 들어갔다가 들켜 왕 서방이 복녀의 몸을 요구했을 때도 복녀는 그 정도쯤이야 별것이 아니라는 태도로 따라나선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왕 서방이 복녀를 정부로 정해 일상 찾아오자 이것 또한 복녀에게 자신감을 갖게 했다. 그러다가 빈민굴의 부자가 될 정도로 복녀의 생활이 안정이 되자 복녀는 동네거리와의 매음을 중단하고 왕 서방만 대한다. 그러나 복녀의 이러한 상황은 왕 서방이 새로이 신부를 들이는 데서 파탄이 나게 된다. 생계를 안정시키고 편했던 생활방편의 상실과 동시에 복녀 자신에 대한 회의로 인해 왕 서방에게 대항하다 죽게 된다.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답게 해주는 것을 포기하고 타락한 현실과 타협한 것은 살아야 그 다음 무엇이랄도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생존이 최우선이고 존재의미는 그 다음이란 생각이다. 인간이 생존만을 추구할 때 동물이 되고 만다. 그런데 삶에 여유가 생기면 자기존재에 대한 의의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기도 하다.

복녀가 왕 서방의 정부가 된 이후 “동리 거리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⁶⁾는 것은 생활의 든든한 배경이 생겼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서 일 것이다. 그것은 복녀가 생활에서 돈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제까지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맺어온 동네 거지와와의 매음을 굳이 중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복녀가 그렇게 한 것이 돈에 대한 관념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가난으로 인해 그녀가 취한 행위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가난 때문에 ‘짐승의 일’로 여기던 매음까지 하는 처지에서 돈에 대한 관념이 불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몸을 밀천으로 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렇게 했다면 왕 서방에게 목숨걸고 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그와 같은 자신감은 왕 서방과의 타협을 통한 또 하나의 거래,

6) 김동인, 「감자」, 앞의 책, 24쪽.

보상을 요구했을지도 모른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복녀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다.

복녀가 죽음의 길을 택하면서 가진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생존이 위협받는 처지에서 앞 뒤 가리지 않고 매음을 했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나자, 이전의 상태로 자신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한 생각이 고개를 들어 동네거지와 매음을 중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찾기 내지 자기인식에서 나오는 것일 진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동물적 본능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복녀는 동물적인 소유본능에서 상실에 대한 발악만으로 왕 서방에게 대든 것이 아니다. 복녀는 왕 서방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정부로서의 지위(?)까지 도달하게 되자 그 속에서나마 자기 정체성을 생각한 것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복녀는 이미 었질러진 물이지만 현재 상태로서의 최소한의 자기는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복녀는 왕 서방의 정부로서 행세하는 동안 왕 서방으로부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왕 서방을 인식한 것이 아니고 부도덕하지만 자신으로서는 새로운 삶을 이룬다는 생각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가난해서 한 남자만을 섬기지는 못했지만 생계에 여유가 생기고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다른 마음 두지 않고 믿고 안정되게 살아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복녀의 처지에서 볼 때 극도로 게으른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은 이미 남편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있어 남편이지만 남편이 아닌 상태인 것이다. 남편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남편이 있고 없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왕 서방에게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자

7)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나 다시는 인간적인 것을 회복할 수 없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비인간적인 상태로 남아야한다는 것은 인간의 외면만을 보고 내면은 제거해버린 즉 인간성을 도외시킨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명구(『金東仁 小說研究』,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0, 87쪽)도 지적하고 있듯이, 복녀는 왕서방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왕서방에 대한 애정이 생겨난 것이고 이는 돈만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신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배반당하는 데서, 복녀로서는 마지막 기대일지도 모르는 것이 어긋나는데서 복녀는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그 결과 삶에 대한 자신감 즉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는 데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녀는 처음부터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깊이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온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삶에서 별다른 의식 없이 일상적인 관념에 따라 살아왔다. 그런데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쳐봐도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서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알게 되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거기에 스스로 타협한다. 그러나 그것이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써는 자신감까지 생기게 했지만 복녀의 내면에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게 했음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복녀와의 관계를 단지 임시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던 왕 서방이 새신부를 사 들이는데서, 복녀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철저히 타락하여 돈만 아는 여자가 되지 못하고⁸⁾ 자신의 존재의미도 생각하기에 이 일을 통해 모순된 자신의 존재를 확연히 인식하게 되고 그 모순으로 인해 더 이상 자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낙망하여 죽기를 각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복녀는 자기모순을 인식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절망을 왕 서방, 세상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고 있다. 자신의 모순을 받아들이기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부조리한 세상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복녀는 이제까지 비인간적인 부조리한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시집을 왔고 게으르고 무능한 남편을 받드는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으며 왕 서방을 위해 한 눈 팔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것이란 배신밖에 없다고 느낀 것이다. 세상이 자신을 파멸시키고 또 다시 거기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을 확연히 인식하는 데서 복녀는 왕 서방에게 무모한 반항

8) 만일 돈만 아는 영악한 여자였다면 게으른 남편을 버리고 한 때나마 왕서방과만 살림 차리고자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처지를 비하하고 있거나 아직도 일반 생활관념에 매여 있음을 엿보게 하는 요소이다. 이것 또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을 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가난으로 인해 희생된 한 여인의 죽음을 돈으로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2. 「狂炎소나타」

불우한 환경 때문에 죄를 범하게된 백성수란 한 예술적 천재를 용서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狂炎소나타」는 주인공이 몰인정한 세상인심 때문에 배신감을 갖게되고 절망하게 되지만 도리어 그것이 내면의 음악적 열정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베토벤처럼 힘 있는 곡을 작곡하게 된 과정이 서술되고 있다.

백성수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교육열과 훈육으로 중학교까지 음악교육도 받고 착하게 자라면서 ‘음악에 대한 동경이 그의 가슴속에 터질 듯이 쌓이게 된다.’ 그러나 가난은 그로 하여금 음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고 비록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지만 감정의 표출을 자제하도록 훈육받았고 음악적 재능에 대한 계발이 저지됨으로써 때때로 비상한 감흥이 나서 작곡을 해도 그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그를 좌절하게 하였고 한편으로 가난에 대한 아픔을 깊이 각인하게 하였다.

그런데 병으로 어머니가 자리에 눕고 그로 인해 모아 두었던 얼마간의 돈마저 다 쓴 상태에서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백성수는 그 위급함을 넘기기 위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도둑질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한 죄를 세상은 외면한 채 그를 범죄인으로만 대할 뿐 부모의 임종마저 허락하지 않는다. 세상의 몰인정하고 비정함으로 인해 어머니의 임종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채, 형을 살고 나온 백성수는 고통 속에 홀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분묘마저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대하자 세상에 대한 원한이 더욱 사무치게 되고 분노는 이성의 절제를 넘어 자신을 감옥에 가계한 사람의 집을 방화하게 한다.

백성수는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없는 고통이 컸지만 그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절제하면서 현실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인정마저 베풀지 않음으로써 백성수로 하여금 이제까지 믿고 의지해온 세상에 등돌리게 했고, 게다가 혼자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은 세상인심을 보면서 인간다움의 바탕인 양심이란 것이 있는지 회의하게 된다.

세상은 결과만을 중시하고 그 동기와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자신은 인간다움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백성수는 착하게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느끼게 되어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하여 삶의 허무가 그로 하여금 미치게 하고 자학적이게 하여 비인간적인 세상에 대해 그와 똑 같이 복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백성수가 작곡한 ‘광염쏘나타’의 전개과정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좀 급속도로 시작된 빈곤, 거기 연하여 주립, 꺼져가는 불꽃과도 같은 목숨, 그러한 것을 지나서 한참 연속되는 완서조의 압축된 감정, 갑자기 튀어나온 광포, 거기 연한 쾌미, 흥소”까지의 전개과정은 그의 뇌리에 박힌 과거사이면서 비인간적인 세상에 대한 허탈한 심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포- 쾌미’에 이어 ‘흥소’로 끝맺은 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흥소의 뜻처럼 좌절되고 배반당한 삶의 허탈함과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세상을 우롱하고 자기 학대로서 양심도 없는 인간을 멸시하면서 나온, 절제되지 않은 흥분된 상태의 감정을 분출한 음악도 광기에 젖은 그 순간뿐이지 다시 기억될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백성수를 돌보는 음악비평가 K가 백성수의 재능을 끌어내고자 하는 일이 도리어 백성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그로 하여금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으니 결국 백성수는 K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파멸시키고 만 셈이다. 백성수는 음악창작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 K에게 빚진 것에 대한 갚음으로 범죄를 통한 조건 반사적인 창작을 했던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떠오르지 않는 악곡을, 범죄를 통한 정신적인 충격을 통해 원초적인 야성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작곡에 몰입하게 된다. 그것도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충격을 더하는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심

지어 살인하는데까지 이르러야 작곡을 할 수 있게되었으니 결국 비평가 K의 무언의 압박으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⁹⁾ 방화와 살인을 의도적으로 저지르면서 작곡을 하는 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절망이면서 동시에 자아성취이기도 한 이 율배반적인 것이기에 백성수는 더욱더 고뇌하게 된다.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제한되기에 이른 뒤에 비평가 K에게 보낸 편지에서 백성수는 정상적으로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는 그 스스로도 자신을 믿을 수 없어 고뇌하면서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고 만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Ⅲ. 자연과학적 인식과 도덕의식의 괴리

「감자」에서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복녀의 비참한 삶의 모습과 복녀의 죽음을 돈으로 은폐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狂炎소나타」에서 주인공이 광인이 되어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작가는 왜 이런 삶의 모습을 설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인공을 극도로 비인간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해 부정적 인식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도덕의식은 높지만 그것을 비인간적인 현실에서 도저히 실현할 수 없다는 좌절에서 오는 절망이 주인공을 극단적으로 비인간화시키는 비꼬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꼬임 내지 부정적 인식은 김동인의 경우 삶의 방향상 실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狂炎소나타」의 서두의 전제를 통해 볼 때,

독자는 이제 내가 쓰려는 이야기를 <유럽>의 어떤 곳에 생긴 일이라고

- 9) “때때로 비상한 열정으로 음보를 그려 놓은 뒤에 몇시간을 지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는 아무 힘도 없는 개념만 있곤 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차차 무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도 미안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전집2, 46쪽)

생각하여도 좋다. 혹은 四, 五十년 뒤에 조선을 무대로 생겨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다만 이 지구상의 어떠한 곳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가능성은 있다. - 이만치 알아두면 그만이다.

그런지라, 내가 여기 쓰려는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백성수(白性洙)를, 혹은 알베트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짐이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또는 호모(胡 某)나 <기무라> 모(木村 某)로 생각하여도 괜찮다. 다만 사람이라 하는 동물을 주인공 삼아가지고 사람의 세상에서 생겨난 일인 줄만 알면...¹⁰⁾

세상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동물로서의 삶만이 가능한 세상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인간이라 하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작품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세계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세계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인간다움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내면적으로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감자>에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도 늦게서야 존재의미를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모순을 넘어서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는 ‘복녀’에게 냉소적이었고, <狂炎소나타>에서도 양심적인 한 인간을 광인으로 만든 비인간적인 세상에 대해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광인을 도리어 옹호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내면적으로 도덕의식이 분명하면서도 왜 비윤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인공을 절망하게 한 암담한 세계의 모순만 보고 있을 뿐 그것을 넘어서려 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전망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인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보다 앞서 서구의 과학문명을 추종하여 강대국으로 변모된 일본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인간의 삶을 제한하던 자연을 과학의 힘으로 극복하여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는 문명의 모습을 보면서 김동인은 과학문명의 위력과 그것을 이룩한 인간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우리도 당연히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확신한다.¹¹⁾

10) 전집 2, 33쪽.

그래서 그것을 이룩하게 한 과학문명에 거의 맹목적인 정도로 신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배따라기」¹²⁾에서처럼, 도리어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과학문명을 시대의 대세로 파악하고 그 잣대로 현실을 보고 있기에 서구과학문명이 남긴 제국주의의 모순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대에 뒤쳐진 우리의 잘못된 탓할 뿐이거나, 이미 시대에 뒤쳐져 있고 더군다나 식민지하의 구속된 삶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의 패배만이 있을 뿐이란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감자」의 복녀처럼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타협하거나 타락하지만 자기모순으로 인해 비참한 삶만 초래하게 되는 것을 설정하게 되고 「狂炎소나타」에서는 그 반대로 주인공을 광인으로 만들어 비인간적인 현실에 반항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작자는 과학, 힘, 물질주의가 모순을 안고 있지만 그것이 시대의 대세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에 자신의 가난과 약함만을 탓하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세상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문제삼는다 해도 비밀상적인 무리한 반항에 그치고 있다. 세상의 모순을 형상화하여 그것이 자가당착에 빠져 무력화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부당한 세상의 힘에 눌리고 있는 인간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그 힘에 눌리고 있는 인간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그 힘의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똑같은 모순을 범한 채 비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인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덕의식은 높아 약한 인간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만 한데, 도덕의식이 높다면 부조리하고 부당한 세상에 파멸되고 말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거나 극복하는 인간을 형상화해야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 도덕의식은 높아도 도덕적 신념은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인식과 반대되는 인물을 긍정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강한 도덕의식의 좌절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인간적인 현실에 대한 부정의 방편으로 나온 것이지 도덕적 신념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11) 김동인, <사람의 사른 참 模樣>, 「창조」 8호, 1920년 1월, 25쪽.

12) 이동길, <金東仁 小說의 인식변화와 창작태도>, 「국어국문학연구」 제25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자아의 자존심만 높아 부당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태도이지 부당한 세상에 맞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그래서 작품에서 형상화된 인물도, 비인간적인 세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세상이 자신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서 자신마저 비인간적으로 되어 버리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비인간적인 세상에 대한 비판의 설득력도 잃고 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존재가치가 올바른 도덕적 신념의 일관된 실천에서 형성되는 것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작가는 왜 도덕의식은 높지만 도덕적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가? 서구 근대 과학문명 속에 내재된 물질중심적인 현실논리에 도덕적 가치가 무력화되는 현실을 체험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긍정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생존해야 도덕적 가치도 회복할 수 있고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내면에 자리잡고 있기에 물질중심적 현실논리, 힘의 논리에 눌리고 만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의미가 어디에 바탕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이 흔들린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인식은 인간의 존재가치에 대한 상대화를 초래했고 삶의 주체로서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감자」의 복녀처럼 존재의미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狂炎소나타」의 「백성수」처럼 모순으로 인한 파멸만 남게 되는 것이다.

현실은 물질중심의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한 그 길로 가야하지만 그것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길로 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모순을 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할 기준이 서지 않아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삶의 본질적인 것과 현실적 요청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측면에 기울게 됨으로써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한 것이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작가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여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한 것이다. 또한 작가로 하여금 비판적이고 비일상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다. 그리고 작가는 현실적 요청이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삶의 본질적인 것을 부정할 수도 없기에 내면의 도덕의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녀의 죽음을 세상 탓으로 돌리면서도 복녀에게 부정적이게 했고 백성수를 광인으로 만들어 반항하게 한 것이다.

IV. 비주체적 현실인식과 부정의 미

「狂炎소나타」의 서두에서 작가는 어떤 신사가 우연한 기회에 아무도 없는 상점에서 욕심이 일어나 조그만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죄는 점잖은 그 신사로 하여금 욕심을 동하게 한 환경에 있지 그 신사에게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에 빚대어 불우한 환경으로 음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난으로 인해 원한과 증오로 사무친 백성수가 범죄를 저질러야 그 천재적인 재능이 발현되는 일에 대해 그의 천재적 재능, 예술을 위해 그의 범죄가 용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는 사람은 모두 성인이 아니기에 이기적 욕심을 지니고 있어서 외적환경에 따라 욕심 (범죄)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반이성적인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확신하고 끊임없이 성찰함으로써 욕심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생각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삶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는 태도이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언제나 이성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변적인 대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존재가치를 상대화시킨 양상이다. 그러기에 사소한 범죄일 지라도 죄를 범한 사람을 문제삼지 않고 환경 탓만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태도가 백성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가난하지 않고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과 범죄의 발단이 백성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환경 탓으로 돌리고 그의 천부적 재능, 예술을 위해서 범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논리는 역시 삶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외적 대상에 종속되게 하는 태도이다. 문면에서는 백성수의 가계적 유전적 요인을 들어 천부적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위해 그의 비인간적인 범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술이 인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예술을

위해 인간이 희생되어도 된다는 논리는 예술을 창조하는 한 인간을 위해 다른 인간의 존재가치는 배제되어도 된다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결여된 반이성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감자」에서도 세상이 도덕과 같은 정신이 아닌 물질(돈)이 삶의 중심에 자리잡아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속에서 끝없이 전락해가는 ‘복녀’의 비참한 삶을 통해, 비록 죽음을 통해 존재의 의미에 대한 자각을 하지만, 인간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김동인이 이처럼 인간의 존재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은 현실논리에 굴복하여 존재의미에 대한 본말이 전도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존재의미의 근본적 신념이 강고하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내면의 도덕의식이 높지만 그것을 도덕적 신념으로 체현하지는 못한 것이다. 인간이 비록 세계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세계의 질서에 한계지어진 자신의 외적존재를 생각하지만,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고 세계와의 일치를 통해 그 외적인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 수 있을 때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로 현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외적인 조건의 모순을 바로 보고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내 존재로서의 인간이 존재의 본질은 제쳐두고 존재의 한계만을 보는 데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상대화시키는 논리에 빠지게 되고 비주체화 될 수밖에 없다.

김동인의 비주체적인 현실인식은 모든 것이 힘으로 결정되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힘의 장벽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삶의 방향과 희망을 잃게 한 현실위주의 피상적인 인식태도에 있다. 현실의 삶만을 전부인 양 생각하고 현재의 삶만이 중심이 된 사고방식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김동인이 근대 물질문명의 위력에 압도당하고, 또한 그 힘의 우열로 질서화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힘의 논리를 긍정하고 물질중심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데서 주체까지도 대상화하여 버린 것이다.

마치 과학문명을 발전시킨 인간의 위대함이 과학문명에서 실증되는 듯하고 세계의 주인인 듯이 생각하게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인간을 구속하는 현실은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말아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존재에 회의를 가져오게 되었듯이, 주체의 대상화는 삶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자연히 상실하게 되고 말아 현실의 변화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감자」와 같이 자연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나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狂炎소나타」와 같은 유태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삶이 비참하고 부도덕하며 비인간적으로 형상화된 것도 물질중심의 현실인식과 내면의 도덕의식과의 괴리에서 빚어진 비관적이고 비주체적인 인식의 결과물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다만 그 비관적 인식을 현실논리에 순응해서 드러냈는가 아니면 현실논리를 벗어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대응했는가의 차이만을 지닐 뿐이다.¹³⁾ 그러기에 두 작품 다 비극적인 삶을 통해 존재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나 주체 부정을 통해 주체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뿐이지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결과로서의 것이 아니기에 진정한 주체 회복에는 실패한다. 그래서 김동인이 온갖 것을 ‘미’란 이름 아래 자의적으로 넣고자 했던 창작방법으로서의 ‘美’도 주체 회복의 한 방법이면서 현실대응의 한 방법으로서였지만¹⁴⁾ 이러한 비주체적인 현실인식에 근거한 모순된 것이었기에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하고 강변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선택된 부정의 ‘미’는 세계에 대한 현상적이면서 자연과학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나 客觀的이고 理智的이기보다 感傷的 태도의 산물이다. 그래서 주체를 세울 수 없는 현실에서 주체를 존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주체적인 존재를 내세워 주체가 없어진 현실을 부각시켜 그 역효과를 통해 주체를 생각하게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생활에서 그전까지 접왔던 자신이 “광포한 방탕”으로 행동의 방향을 바꾼 것은 빼앗긴 조국과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거부하는 방편이고 자기의 절망에 대한 어긋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듯이, 소설에서도 「감자」의 ‘복녀’와 「狂炎소나타」의 백성수

13) 김동인이 추구하는 미는 부당한 현실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의 미일뿐(이문구, 「金東仁 小說의 美意識 研究」, 63-78쪽 참조), “美 속에 스스로를 연소시키는 耽美主義者の 모습은 안보이다.”(金春美, 「金東仁 研究」, 227쪽)

14) 이동길, <金東仁 小說의 인식변화와 창작태도>, 「국어국문학회연구」 제25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372쪽.

같은 비주체적 인물이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삶의 주체로서의 존재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나 어리석고 비윤리적인 인간만이 더 크게 부각될 뿐 존재의 온전한 모습으로서는 실패이다. 나라가 망해 주체가 없어진 현실에서 부정과 역설의 방법을 통해 주체를 세우려 하나,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대상을 통한 것이기에 진정한 주체회복은 되지 못하고 감정의 배설이 될 뿐이다. 그래서 낭만적인 성향이 강한 것도 감정이 짙게 배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현실의 표피를 차갑게 그린 것도 그것이 사실적으로 다가오기보다 감정이 짙게 배인 여운이 남게 되면서 냉소적인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부정의 '미'는 자연과학적 인식과 도덕의식의 괴리에서 나온 비주체적 인식의 결과물로서 예술성의 존재의의를 강조한 의미가 있다고는 하나 현실에 대한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短見일 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위주의 비주체적인 인식이 역사의식의 부재까지 초래하고 있다

V. 결론

김동인의 작품, 「감자」와 「狂炎소나타」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비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으면서 기존연구에서 자연주의와 유희주의 작품으로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한 작가의 작품으로서 인간의 존재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작품들에 대해 작품이 생성된 공통된 바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두 작품의 분석을 통해 김동인의 인식적 기반과 인식태도를 밝혀 그의 부정적인 미의식이 나오게 된 까닭을 밝혔다.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절망적 현실에 좌절하고 삶의 허무에 빠져 비인간화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도덕의식은 높지만 절망적인 세계의 모순을 넘어 설 수 있는 방향과 가치관을 세우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작가는 높은 도덕의식은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물질주의를 시대의 큰 흐름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 모순된 인식이 삶의 방향을 잃게 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에서는 모순된 현실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길도 찾지 못해 주인공들을 비인간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그 모순을 해소하려고 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감자」의 복녀처럼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타협하거나 타락하지만 자기모순으로 인해 비참한 삶만 초래하게 되는 것을 설정하게 되고 「狂炎소나타」에서는 그 반대로 주인공을 광인으로 만들어 비인간적인 현실에 반항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덕의식은 높아 약한 인간에 대한 시선은 차갑기만 한데, 도덕의식이 높다면 부조리하고 부당한 세상에 과멸되고 말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거나 극복하는 인간을 형상화해야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 도덕의식은 높아도 도덕적 신념은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아의 자존심만 높아 부당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랄도 좋다는 태도이지 부당한 세상에 맞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그래서 작품에서 형상화된 인물도, 비인간적인 세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존재의미에 대한 근본적 신념이 강고하지 못해 현실논리에 굴복하게된 결과 인간의 존재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존재의미에 대한 본말이 전도된 비주체적 인식으로 이것이 인간과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다.

실제로 자연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감자」와 같은 작품이나, 유미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狂炎소나타」와 같은 작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삶이 비참하고 부도덕하며 비인간적으로 형상화된 것도 물질중심의 현실인식과 내면의 도덕의식과의 괴리에서 빚어진 비관적이고 비주체적인 인식의 결과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그 비관적 인식을 현실논리에 순응해서 드러냈는가 아니면 현실논리를 벗어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대응했는가의 차이만을 지닐 뿐이다. 그러기에 두 작품 다 비극적인 삶을 통해 존재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나 주체 부정을 통해 주체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뿐이지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결과로서의 것이 아니기에 진정한 주체 회복에는 실패한다.

그래서 김동인이 온갖 것을 ‘미’란 이름 아래 자의적으로 넣고자 했던 창작 방법으로서의 ‘美’도 주체 회복의 한 방법이면서 현실대응의 한 방법으로서였지만 이러한 비주체적인 현실인식에 근거한 모순된 것이었기에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하고 강변에 지나지 않은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주제어 : 인식적 기반, 자연과학적 기반, 도덕의식, 도덕적 신념, 물질주의, 비
주체적 현실인식, 부정의 미

참고 문헌

- 「김동인전집」 2, 3, 16, 17, 조선일보사, 1988.
「朝鮮文壇」 1925.1.
김열균 신동욱 편, 「김동인연구」, 새문사, 1982.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1987.
김윤식 김 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8.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김춘미, 「김동인 연구」, 고려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5.
김홍규, <荒廢한 삶의 肖像과 幻想>, 「문예사조사」, 민음사, 1986.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 지성사, 1995.
윤명구, 「金東仁 小說研究」,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0.
이동길, <金東仁 小說의 인식변화와 창작태도>, 「국어국문학연구」 제25집, 영남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이문구, 「金東仁 小說의 美意識 研究」, 경인문화사, 199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장백일, 「김동인 문학연구」, 인문당, 198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1995.
조진기, 「한국근대리얼리즘소설연구」, 새문사, 1989.

※ 이 논문은 2001년 5월 18일 투고 완료되어 2001년 6월 2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1년 6월 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